

세포의 기억



신승철
정신과 의사·시인, 블레스병원 원장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들 가운데, 괴이한 경험을 했다는 보고들이 있다.

장기 기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기증자의 기억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경우다.

사람의 체내에 다른 사람의 신체조직이 이식되면, 그 사람 특징의 일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번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어떤 여성이 잠을 자다 깨어났는데, 갑자기 맥주와 통닭이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일어났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전엔 그런 것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티미라는 젊은 남자가 나타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도 기이해서 그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죽은 심장 기증자의 신상을 조사해 봤다.

그녀가 그의 가족을 만나 본 결과,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티미라는 이름의

청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맥주를 즐겼고, 맥도날드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의사인 초프라 박사의 책에 나온 내용이다. 그는 이런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된다고 했다.

일전에 모 주간지에서도 나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보고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궁금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과학적으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보였다.

이는 빙의 현상이랄 수도 없다. 히스테리성이나 정신적 해리 현상도 분명 아니다.

그러던 중 나는 그럴듯한 실존적 가설을 하나 내심 걱정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신체'라는 것은, 그가 겪은 삶의 '경험'이 육체적 표현으로 변형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험의 육화가 곧 지금의 육체라는 뜻이다.

그 육화란, 뇌세포뿐 아니라, 몸의 전반적 세포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받으면, 그의 기억도 받는 것이 된다.

현대 의학으로는 황당한 소리 같다. 하나 아주 틀린 가설은 아닌 듯 싶다. 그런 사례를 달리 설명할 방도도 없어서인 까닭도 있어서다.

일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몸 구조구적으로 그 슬픔을 투사한다.

슬픔과 좌절에 빠지면,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떨어진다.

그 여파로 불면증이 생기고, 각종 장기에도 나쁜 영향이 미친다. 슬픔이 육체적으로도 '현실화'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규명된다. 그런데 기억까지라니?

인도의 힌두교, 불교나 명상 수련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그런 현상을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 같다.

현재까지의 살아왔던 기억뿐 아니라, 윤회를 가정한다면, 전생의 기억까지도 뇌뿐 아니라, 각종 장기세포에도 기억이 입력돼 있다는 입장이다. 비록 세포가 생명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생체적으로 남게 되어 있다.

경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역시 '육화'의 변화도 없다. 해서 경험의 본질적 변화가 생기

면, 거꾸로 신체나 신체의 기억도 얼마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보면, 인도에서 허나, 피부에 날카로운 것을 찌고도 피가 안나고, 고통도 못 느끼는 불가해한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신비롭기도 하나, 생명에 대한 외경심도 들게 한다.

언젠가는 인간의 '의식'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연구가 있으리라.

양자 물리학이나 나노의학이 그런 영역에 접근해 나갈런지도 모를 일이다.

1953년 경기도 강화에서 출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연세의대 정신과 교수, 1987년 미국 텍사스 의대 정신보건과정 연구교수, 전 서울 가정법원 기사조정 위원(1997~2001)을 역임했다. 정신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이며 1978년 해산 박두진 선생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하여 시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장영실 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조선일보 신승철의 부부진단(1997. 3~1998. 4)'을 연재했다. 저서로는 학술서적 '연변 조선족 사회정신의학 연구', 에세이집 '한 정신과 의사의 노트' '남편인가 타인인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시집으로 '너무 조용하다' '개미들을 위하여' '더 없이 평화로운 한때' 등이 있다. 현재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서 '블레스병원'을 개원 중이다.